

현대 패션에 나타난 개더에 관한 연구

정희경* · 이명희

부경대학교 대학원 패션디자인학과* · 부경대학교 디자인학부

I. 서론

복식은 실용적인 목적과 함께 신체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인간의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복식의 미적요소를 표현하는데 있어 장식기법은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 장식기법 중 개더는 완성된 하나의 조형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복식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복식 안에서 개더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개더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복식사나 의상제작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개더의 기법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식기법 중 개더에 관해서 알아보고 현대패션에 적용된 개더의 다양한 기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로써, 의상 창작시 개더의 기법을 활용하고, 새로운 장식기법을 연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의상 장식기법으로서의 개더에 관해 살펴보고, 21세기 패션을 현대 패션으로 정의하여 Milan, New York, London, Paris, Tokyo Woman's Collection을 중심으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이너의 작품을 분석하여 현대 패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개더의 기법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분석 자료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Fashion News지를 이용하였다.

III. 장식기법으로서의 개더

(1) 개더의 개념

의상 장식기법 중 개더는 닉트(dart)의 발전 전부터 사용되어진 의복 조형의 가장 원시적인 수단으로서, 흠질 또는 재봉박음질 후 실을 잡아당겨 천에 주름을 잡아 입체적 조형성을 부여하는

봉제기법이다. 개더는 기능성과 함께 장식적, 미적효과를 지님으로써, 부드러움과 화려한 느낌의 표현으로 의복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조형을 위해 사용되어진다.

(2) 개더의 종류

개더의 종류는 Table 1과 같으며, 소재, 재단방법, 봉제방법, 사용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

〈표〉 개더의 종류

종 류	내 용
cluster gather	무리, 밀집 등의 의미. 부분적으로 집중해 있는 개더
all gather	전체에 개더를 한 것
shirring	평행된 여러 줄을 재봉틀로 박아 밀실을 잡아당겨 개더를 잡은 것
smoking	천에 규칙적으로 스티치 하여 다이아몬드 등의 무늬가 나타나게 한 것
frill	폭이 좁은 천의 한면쪽에 개더를 잡은 것, 의복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것
flounce	천을 원형 또는 바이어스로 잘라 주름을 잡아 박아서 드레스의 스커트 단에나 블라우스 깃과 소매 끝 둘레에 달아 너忸거리는 효과를 낸 것
ruffle	이러한 플레어 형태의 직물에 개더를 잡은 형태, 프릴보다 폭이 넓음

(3) 개더의 기능성

개더는 옷감의 넓은 폭을 원하는 폭으로 줄여, 신체의 활동량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적으로 선으로 인식되어지며, 주름의 폭 방향 모양은 선의 두께 방향 모양으로 다시 재인식 되어 선이 가지고 있는 시각 효과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직선 수평선 사선 방사선 곡선 파상선으로 도출되는 개더는 각기 다른 느낌과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또한 개더는 신체위에 입혀짐으로써 평면상에서 단조로운 반복이 3차원적인 신체의 운동감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개더

현대의 컬렉션에 나타난 여성복 경향은 패션이 본격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한 1920년대의 우아하고 로맨틱한 여성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더의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통해 전달되는 이미지들에 의해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왔다. 개더의 기법을 응용하여 여러 디자이너들은 발상의 제약 없이 다양한 디자인들을 개발하고, 예술과 기능의 일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세계 5대 컬렉션에 등장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해, 표현되어진 디자인마다 개더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면과 응용적인 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V.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더는 가장 원시적인 테크닉으로 평면이었던 직물에 3차원적인 입체공간을 형성한다. 개더의 독특한 조형성 때문에 복식의 각 부분에서 전체적인 외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복식구성의 기본요소와 장식적인 기법이 되고 있다.

둘째, 개더의 종류로는 cluster gather, all gather, shirring, smoking, frill, flounce, ruffle 등이 있으며 소재, 재단방법, 봉제방법, 사용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

셋째, 개더는 신체의 활동량에 대한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며, 신체위에 입혀짐으로써 3차원적인 신체의 운동감에 의해 새로운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넷째, 세계 5대 컬렉션에 등장한 개더가 응용된 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해, 표현되어진 디자인마다 개더를 사용함에 있어서 구조적인 면과 응용적인 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

따라서 개더는 의상의 기능과 장식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각기 다른 기법으로 의복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이로써, 현재까지 연구된 개더를 좀 더 응용하고 개발시켜 창의적인 의상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종희 (1985). 서양의복에 표현된 주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윤미 (1997). 복식 디자인에 표현된 주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순홍 (2003). 서양 복식사에 나타난 의상 장식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권 1호, pp.20-46.

이유경 (1994).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플리츠와 러플을 중심으로-. 이화
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Fashion News. Vol.68-94.